



오늘의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9-10

오늘의 주요 기사

- | | | | | | |
|---|-------------|-----|-------------|----|-------|
| 2 |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 5 | 파더와이즈 수료 소감 | 10 | 교회대청소 |
| 3 | 시니어교구 | 5 | 청년부 마굿간카페 | 11 | 십자말씀이 |
| 4 | 파더와이즈 수료 소감 | 6-9 | 임직소감 | 12 | 사임인사 |



대림절에 올리는 기도

주님,
저희는 참으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남보다 뒤쳐질까 두려워 속도를 높였고,
내 손의 스마트폰 불빛에 갇혀
바로 곁에 있는 이웃의 눈빛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점점 더 높게 쌓아 올린 '나만의 성' 안에서
홀로 있는 것이 편안하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지독한 외로움에 떨고 있는 저희입니다.

양극으로 갈라져 날 선 말들이 오가는 이 차가운 거리 위에
아기 예수님, 당신을 기다리는 '희망'의 촛불을 켵니다.
화려한 성공이 아니어도,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당신이 오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일어서는
소박하고 단단한 희망을 품게 하소서.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기다림의 시간 속에 깃든 그림의 축복을 배우게 하소서.

나와 생각이 다른 이를 적으로 규정하며
마음에 그었던 수많은 금을 지우고
이제는 '평화'의 촛불을 켵니다.
높은 곳을 탐하다 생긴 상처와 갈등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구유를 택하신 당신의 겸손을 배워
서로의 다름을 품어 안는 따스한 화해를 이루게 하소서.

불안과 경쟁으로 메마른 가슴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의 촛불을 켵니다.
남을 이겨야 얻는 기쁨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때 배가 되는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소유의 무게를 덜어낸 빈 마음에
비로소 찾아오는 맑은 웃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기심으로 얼어붙은 세상 한복판에
'사랑'의 촛불을 환히 밝히게 하소서.
"나"라는 좁은 감옥을 깨고 나와
"우리"라는 따뜻한 집을 짓게 하소서.
가장 춥고 어두운 이 계절에
가장 작고 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
저희의 빈방이 당신의 온기로 채워질 때
이 땅의 모든 차가운 경계가 눈 녹듯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의 계절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오소서, 주님.
어서 오시어 저희를 구원하소서.
아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특집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어떤 왕입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교회력에서 마지막 주일로, 대림절이 시작되기 직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넘어 세상의 권력에 맞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교회의 치열한 노력과 신앙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1925년,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극단적인 전체주의와 민족주의가 유럽을 휩쓸던 혼란의 시기였고, 교회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부당한 힘으로 약자를 착취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오 11세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같은 폭력적인 힘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며, 참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이 절기를 제정했습니다. 그는 이 절기를 10월 마지막 주일로 지정하여 1926년 10월에 처음으로 기념하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인과 함께 승리하심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세상의 힘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교회의 거룩한 저항이자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북미 한 교회 예배실의 스테인드글라스. 왕이신 예수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기독교공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9년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 개혁을 통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교회력의 맨 마지막 주일로 옮겼습니다. 날짜를 옮긴 것은 신학적 강조점의 변화 때문으로 이 절기를 한 해의 마지막에 위치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와 현재의 왕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모든 시간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이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역사의 끝은 결국 그리스도의 승리로 귀결될 것임을 기대하고 신뢰했습니다. 가톨릭의 절기였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교회일치운동의 결과로 공동성서정과(1983년, 1992년)를 만들면서 개신교의 성서정과에도 포함되었고, 우리 교단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공동성서정과는 북미 개신교 교단들이 연합하여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등 교회력의 절기에 맞추어 성경말씀을 배치한 성경 읽기표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절기가 처음 제정된 배경인 전체주의, 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 등의 이데올로기가 약화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현존합니다. 또한, 우리 곁에는 ‘돈’, ‘성공’, ‘권력’ 등의 너무나 강력한 우상이 존재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이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날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 세상의 왕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세상의 왕은 다스리고, 군림하고, 명령함으로 자신이 왕임을 드러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고, 희생하고, 본을 보임으로 자신이 왕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였지만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완전한 평화와 구원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절기는 왕이신 예수님의 낮은 통치 방식을 듣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최종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접하고, 결국 이 세상은 악하고 교활한 자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고 누가 진짜 승리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성공하고 모든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십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진짜 승리자라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 읽고 예수님의 최종 승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날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성도님이 섬기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성도님은 이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20~23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설교 영상

시니어교구

‘시니어교구’ 첫발을 딛다

2025 주님의교회 목회 중점사역 ‘시니어교구’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2024년 겨울, 교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고령 성도를 위한 ‘시니어교구’ 신설이었다.

‘시니어교구’ 위원장에 조병길 장로, 협동장로로 최재경 장로를 세운 후, 2025년 새로 부임한 채모세 목사를 담당교역자로 내정하였다. 2025년 초, 기존 교구 소속 고령 성도들이 ‘시니어교구’에 합류했고, 3월 초 ‘시니어교구’가 정식 출범했다.



사실, 그동안 모든 교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지난 16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던 늘푸른대학의 운영방안에서 착안해 [화요모임]을 도입한 것은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화요모임]

새로운 프로그램에 긴가민가하던 시니어들의 기대와 우려는, 동년배들로 조직된 겨자씨가 화요일 정기모임을 갖게 되면서 소속감과 동질감을 회복하게 되었고, 충실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에 점차 만족도를 키워 나가게 되었다. 특히 겨자씨 모임을 통해 말씀 공부와 더불어 친교의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됨은 ‘시니어교구’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과도 일치한다.

특화된 프로그램

고령 세대가 되면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고립과 역할 상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년기 특유의 현상이다. 이에 따른 무력감, 상실감 등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시니어교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예배, 겨자씨 모임 외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체조, 건강 강좌, 나들이, 영화 관람 등 + 오후 9개 취미활동반 운영)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인 신앙 프로그램과 함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시니어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노년은 깨달음의 시기이다.

헨리 나우웬은 그의 저서 <나이 든다는 것>에서
“늙어간다는 건 낙심의 사유가 아니라 소망의 토대이고,
조금씩 퇴락해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할 운명이 아니라
두 팔 벌려 맞아들여야 할 기회다.” 라며
노년을 맞이한 이들에게 혜안을 제시한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는 항상 새롭고도 경이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니어교구를 세우게 하신 후, 두 분 장로님의 리더십, 그리고 목사님의 미래지향적 목회 운영과 더불어 묵묵히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신실하고 성숙한 시니어 성도들과 함께 사랑과 감사와 협력의 신앙공동체를 체험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이라 할 것입니다.



2025년도는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우는 첫발의 시기였다면 2026년도는 멋진 공동체로의 도약의 해가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한다.

글: 정원영 안수집사, 제목: 전선재 안수집사

가정사역원
파더와이즈

남성의 회복, 가정의 회복 - 지혜로운 아버지

남성들 대부분은 바쁜 일정과 책임들에 쫓겨, 삶에서 정말 중요한 우선 순위를 놓치거나 뒤로 미루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남성들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우선 순위를 회복하도록 돕는 가정사역원 프로그램이 바로 파더와이즈입니다. 파더와이즈는 남성들이 가정과 신앙, 그리고 일상에서 바른 인생길을 걷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 7기를 맞은 파더와이즈는 2025년 10월 17일(금)부터 11월 28일(금)까지 총 7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매주 말씀과 나눔, 깊은 묵상과 실천적인 적용을 통해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남성 성도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하는 영적 원리와 실제적인 방법들을 익히고, 아내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세우는 법을 배움으로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각 조별로 함께 나누는 기도와 격려, 그리고 서로의 삶을 진실하게 나누는 과정은 많은 분들께 큰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참여한 아버지·남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파더와이즈가 더 많은 가정과 아버지들에게 건강한 변화와 회복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지혜로운 아버지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훈 목사

가정사역원
파더와이즈

신앙의 깊이와 가정의 사랑을 다시 배우다

파더와이즈 제7기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을 매일 묵상으로 이끌어 주시고, 매주 수업을 주관하여 교육 내용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이상훈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2조의 6S 기도와 말씀 나눔을 잘 이끌어 준 장민중 조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육을 마치고 소감 발표의 기회를 양보해 준 우리 2조의 젊은 아빠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선 저부터 소개드립니다. 저는 77세의 안수집사이며, 5교구 16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도 박준범 목사님을 모시고 구역에 배를 드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전에 연지를 통하여 불명을 부여받았던 불교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인도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구원의 확신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을 겨우 극복하며 신앙을 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 파더와이즈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로서 유일한 우리 딸과 사위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비법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7주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오히려 제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욱 심도 있게 발전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교재의 저자 데이빗 글렌이 지구물리학자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마더와이즈 지혜》의 저자인 아내 드니스 글렌이 먼저 시작한 사역을 본받아 본 교재를 집필했다는 내용을 보며, 아내의 도움으로 신앙을 다져가고 있는 남편으로서 큰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남자로서 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설명해 주고,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체험적으로 느끼게 해 주는 과정이라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남자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통한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운 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흐름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

한 것이 아내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2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실 이 구절을 접할 때까지의 제 생각은 '성경이 꽤 보수적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교재에서는 남편이 먼저 아내를 섬기는 것이 우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 중 하나였던, 아내의 면전에서 직접 칭찬하는 쑥스러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이 큰 수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듯 아내를 칭찬하라는 저자의 조언대로 실행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즐기는 취미는 올림픽공원 해돋이동산에서 일출을 감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내에게 감사하는 기도문을 작성해 일출 사진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제가 보낸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만 평생 사랑해 주는 제 아내 박영옥 권사를 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즐기는 해돋이 감상을 받아들이고 동행해 주는 아내의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가 평생 한 몸으로 살다가 동시에 천국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 집에 돌아오니 아내의 대접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교육 시간이라 아쉽지만,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월요일에 제출한 과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일은 우리의 네 번째 우선순위다. 첫째가 하나님, 그다음이 아내, 자녀, 그리고 우리의 일이다. 하나님, 네 번째인 일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아온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첫째로, 아내를 둘째로 두고 살아가는 남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영환 안수집사 / 5교구

가정사역원
파더와이즈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과 나누며 배우고자 하는 뜻을 품고 파더와이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아직 어린 편이라 육아 선배님들의 기독교적이고 지혜로운 육아 방법을 나눔을 통해 배울 수 있었고, 또한 아내와의 대화 방법이나 좋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만난 분들과 서로를 위해 즉석에서 드린 짧지만 진실한 중보기도 시간은 참 은혜로웠습니다. 매주 자신의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 잘 알지 못함에도 누군가가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힘과 중보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7주간의 과정을 통해 제가 다짐한 것은, 아이들의 훈육과 아내와의 관계의 기본은 항상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는 세상적이고 자극적인 아이들 훈육 방식이나 부정적인 부부 관계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결혼 생활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쉽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그것과는 차별된, 더 나아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결혼 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파더들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주간의 과정을 인도해주신 이상훈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조를 이끌어주신 조장님과 함께 나눔을 나누어주신 조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 2조 파더와이즈 7기분들의 수료를 축하드리며, 이 코스를 끝까지 함께하시고 모든 과정마다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임승택 집사 / 8교구

청년부
마곳간카페

청년들이 꾸밀 크리스마스 팝업

어느덧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이 화려한 선물과 값비싼 식사, 그리고 낭만적인 분위기로만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그 본질은 잊혀져 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교회 청년부는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세상에 전하려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부 내 '글로리웨이브' 사역팀을 중심으로 많은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획했습니다. "복음은 결국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마음을 모아,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 망원동의 카페 '모을'에서 12월 20일(토)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2천 년 전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셨듯이, 저희도 망원동에 작은 '마곳간카페'(마구간이 표준어이나 마곳간으로 표현한 것은 '마(GOD is) Good간'을 표현한 것임)를 엽니다. 청년들이 직접 디자인한 토크 튀는 굿즈와 다채로운 현장 콘텐츠 개발을 통해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다가올 2026년을 감사로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문화라는 옷을 입고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외치는 이 귀한 자리에 성

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주셔서,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청년부



속보! 요즘 예수님 생일파티, 카페에서 한다고?

주님의교회 청년부 예배문화사역팀인 글로리웨이브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마곳간카페 팝업을 오픈합니다.

• 마곳간카페

마곳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흥미로운 전시 체험존과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정판 굿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일자: 2025년 12월 20일(토)

운영 시간: 오후 12시 - 오후 10시

장소: 망원동 카페 모을

• 공간 안내

1층: 마곳간카페 전시 체험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세요

2층: 한정 굿즈 코너

특별한 기념품을 만나보세요

3층: 카페 모을 정상 운영

아늑한 분위기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세요 * 마지막 입장은 오후 9시까지입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생일을 빛내기 위해 모인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이런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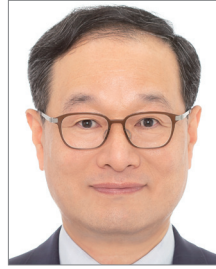
올해 5월에 실시된 2025 항존직 선거를 통해 장로 4인, 안수집사 13인, 권사 17인이 피택되었고 6개월간의 피택자 교육 과정을 마치고 2025년 11월 30일 4부 예배 시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피택자 교육 과정의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통해 항존직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가나다 순) **함글함글**

■ 장로



고경임 장로

하나님 맡기신 직분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로 연약한 저를 부르시고, 날마다 말씀과 QT로 세밀하게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직분을 행함에 겸손과 순종으로 기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175일의 여정 동안 저희를 지도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박석진 장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피택 되어 피택자 교육 기간 동안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성경 통독과 매일 QT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임직자로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하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신성철 장로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소서. 항상 기도예 힘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엄인호 장로

장로 피택 소식을 들은 이후 Why me Lord?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임직을 앞두고서야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처럼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저를 당신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총회헌법 제2편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 안수집사



강정구 안수집사

나이가 60이 다가오자 인생을 조금은 돌리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제 삶입니다. 직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서 안수집사는 부담되어 피택했는데 막연히 이제는 좀 더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택 교육 과정에서 큐티를 직접 쓰면서 은혜를 받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리셋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기훈 안수집사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깊이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를 붙들어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앞으로 받은 은혜와 감사의 기쁨을 널리 나누고 맡겨 주신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김성규 안수집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저의 신앙을 체크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하루 시작을 묵상과 큐티로 시작한다는 것에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하는 훈계 같았고 큐티를 하면서 한 절 한 절이 뜻이 있고 감동이 감사로 나왔습니다.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이 신앙의 밑거름이 될 거 같습니다.



김종석 안수집사

안수집사 피택을 받고, 피택 교육을 마치고 1박 2일 수련회를 끝내고 임직 소감을 적어봅니다. 저는 전형적인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주님의교회 등록하면서 예배는 주일 하루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피택 교육 중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가장 은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기적 아닌 기적이 있었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 안수집사



김홍섭 안수집사

피택 교육을 통해 제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굳게 결단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더욱 성숙하게 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도원중 안수집사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임직합니다. 올바른 신앙과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호흡이 함께하는 동안 주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부활을 되새기며 마음에 온유를 품고 무엇이든 나누게 해주시옵고, 주님 얼굴 뵙기 전 마지막까지 온전히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성낙훈 안수집사

교육의 시작이었던 5월 어느 날에서 이제 교인들 앞에서 서서 서약을 할 때가 왔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기쁨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기쁨 안에서 주님의 부르시고 세워 가심에 순종으로 따르는 임직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안 준 안수집사

수억 년의 시간 속에서 수억 명의 사람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가능한 일일까요? 기억하며 주시고 불러 주심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렇기에 부족한 저에게 이곳에서 하게 하심은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두려우면서도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나의 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넋시!



오상훈 안수집사

설렘과 두려움 속에 시작한 피택자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묵상과 교회생활, 일상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임직 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맡겨 주신 사명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정인혁 안수집사

쓸 데 없고 병든 죄인이라는 고백에 저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반응이 나의 열심과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정확히 반응하는 자 되어 제게 주신 길을 걸어갈 지혜와 용기, 힘과 믿음, 기쁨과 평안을 주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주신 귀한 것들을 잘 섬기도록 도우소서, 아멘!



최민기 안수집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앞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모든 일에 본이 되어 선한 일을 힘쓸 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현정근 안수집사

5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피택 임직자 교육을 통해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새벽의 말씀과 나눔 속에서 임직자의 길이 섬김과 순종의 훈련임을 깊이 깨달으며, 남은 시간도 더욱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홍승호 안수집사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알 수 없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내가 피택이 되고 무슨 뜻인가 몇 번을 생각했던 것 같다.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인성과 교양 있는 리더십을 배웠다. 큐티와 성경일독을 통해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의 퍼즐을 맞춰 갔다.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과 자유를 알게 되었다. 주님의교회 목회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회헌법 제2편 제8장 안수집사 및 권사

제50조 안수집사의 직무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51조 안수집사의 자격

안수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후 3 : 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권사



김주현 권사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피택 교육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기간 내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책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삶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박설리 권사

저는 권사 직분을 받을 만큼 신앙심이 깊지 않았고 많이 부족하지만 과분하게 일꾼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워십으로 선교도 다녔고 시니어 교구에서 체조로 섬기며 저의 사명과 신앙심을 찾게 되어 이렇게 피택되었습니다. 6개월 교육과정이 일정상 순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하게 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 끝까지 완주했으니 그 은혜로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박성연 권사

직분 교육과정을 지나오며 매일 말씀과 큐티로 훈련 받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때로는 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였지만 훈련의 과정에 있습니다. 내 기도를 안 들으셨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었구나'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의 길을 이끄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송숙희 권사

할렐루야~ 저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안남희 권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믿음의 선배님들,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는 말씀을 품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신 부모님,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해 준 가족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윤정 권사

피택 교육을 마치며 부담과 함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실만한 그릇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주신 직분이 부담으로 다가오나 주님이 내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실지 기대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알아 가리라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하고 사랑하는 권사로 날마다 새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애써주신 모든 손길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은하 권사

피택자 교육은 훈련이었습니다. 매일의 QT 묵상과 나눔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리더십 교육으로 순종과 섬김을 알았으며 조별 모임으로 선한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귀한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섬기는 주님의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유혜림 권사

피택자 훈련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아프고 숙제가 밀리기도 했지만 다시 다 집할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은혜로웠고 동기분들과의 나눔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와 큐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평생의 습관으로 남을 것입니다. 임직이 주는 책임과 부담감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에 기대가 큼니다.



이승란 권사

제가 좋아하는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감사, 구원하신 것도 감사, 내 뜻대로 안되어도 감사, 이 모든 감사가 피택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무익한 종을 권사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낯설고 어색함에 권사라는 부름의 소리가 무겁게 들려오지만 주가 바라시는 순종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이인숙 권사

부족한 저에게 권사라는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과분한 직분에 무겁고 두렵게 느껴지지만,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무장하고 감당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교회의 화목을 위해 겸손히 헌신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격려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 권사



이주영 권사

지금까지 제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직분을 맡겨 주시니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정금 권사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더욱더 힘내어 강건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여 주의 일에 힘쓰라고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택 교육을 통하여 오직 말씀과 기도 순종하여 제게 주신 달란트 가정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에 성령과 지혜 충만함으로 충성하길 원합니다.



정혜정 권사

익숙함 속에 습관적으로 주님을 만나던 제게 피택 교육은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 부르심이었습니다. 잘 준비된 교재들을 통해 말씀 안에서, 비워졌던 저의 삶이 다시 채워져 감을 느낍니다. 부족한 저를 단정하며 참소하지 않고 절제하며 충성된 자로 빚어 주옵소서.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정희선 권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하니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저를 불러주셔서 등불 밝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성정일독을 하면서 해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호흡이며 삶의 중심이십니다.



천금미 권사

긴 직장 생활을 마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서 피택 권사로 임직을 받아 교육을 받았습니다. 175일 교육받는 기간 동안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지만 주님께서 곁이 곁이 함께하셨습니다. 임직자로서 제가 섬기고 있는 곳에서 이제껏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실하게 섬기며 하나하나 배워가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중희 권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직분의 무게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겸손과 충성, 봉사의 자세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온전한 헌신, 바른 섬김으로 권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 삶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황혜영 권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여정에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이 길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깊이 느끼며, 그 사랑에 힘입어 함께하는 이를 사랑하게 하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참 생명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총회헌법 제2편 제8장 안수집사 및 권사

제52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3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후 3:1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남녀선교회
교회대청소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기쁨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

많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이 교회를 돌보고 주님을 섬기는 복되고 귀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교회 성전을 청소하면서 한편 우리 마음 속의 성전도 청결한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청소가 단순히 예배처소를 깨끗이 하는 일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니 의자를 닦고 바닥을 걸레질하는 것에서 곧 하나님의 집을 돌본다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곳이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공간이니 그 공간을 정돈하는 시간들이 마치 우리 마음속의 성전도 함께 정돈하는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주님의 집을 위해 작은 수고라도 드릴 수 있음이 큰 감사이고 앞으로도 교회를 섬기는 다른 일들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째 주일을 앞둔 11월 29일 토요일 새벽예배 후 6시 30분부터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부 자원봉사자들과 사역자들이 식당에 집결하였습니다.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의 인

사와 청소구역 배정을 받고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각 담당구역으로 이동하여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깨끗이 하며 우리 마음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청소를 끝낸 후 도구를 반납하고 준비된 간식을 받아 식당 곳곳에서 담소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른 시간에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 잠을 아끼고 달려오신 많은 성도님들의 정성과 섬김이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재희 안수집사 / 제2남선교회 회장



담임목사동정
코스타집회

북미 청년들에게 전한 복음의 기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5 KOSTA Toronto Conference에 본교회 담임목사인 김화수 목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말씀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돌아왔다. KOSTA(코스타)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유학생, 청년, 이민자를 위해 복음적 리더십을 세우는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라”는 비전을 품은 국제적 복음 컨퍼런스이다. 올해 토론토 코스타는 1월 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진행되었으며, 캐나다 전역에서 모여든 대학생, 청년, 직장인들이 말씀과 예배로 재충전받는 시간을 가졌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21일 오전 집회와 22일 저녁 집회의 강사로 초청되어, 세대를 넘어 지속되어야 할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전하였다. 말씀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에게 ‘부르심 안에서 나를 다시 세우는 은혜’를 일깨워 주었고, 뜨거운 기도와 눈물의 반응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주었다.



올해 코스타는 예배와 말씀뿐 아니라 조별 모임을 통한 깊은 나눔, 세미나 1, 2(박형은·이길표·김광일 강사)의 전문적 강의, Kosta Talk을 통한 실질적 신앙 적용, 청년들의 감동을 더해진 뮤지컬 「The Gospel」, 마지막 날의 Farewell 예배까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구성되었다.

특히 마지막 날 “내년에 만나요!”라는 인사와 함께 드린 예배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다는 결단이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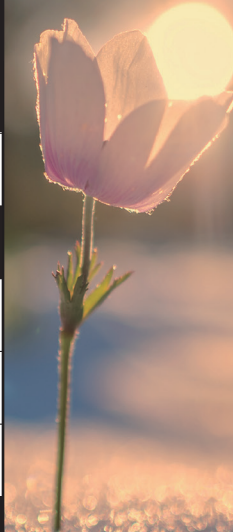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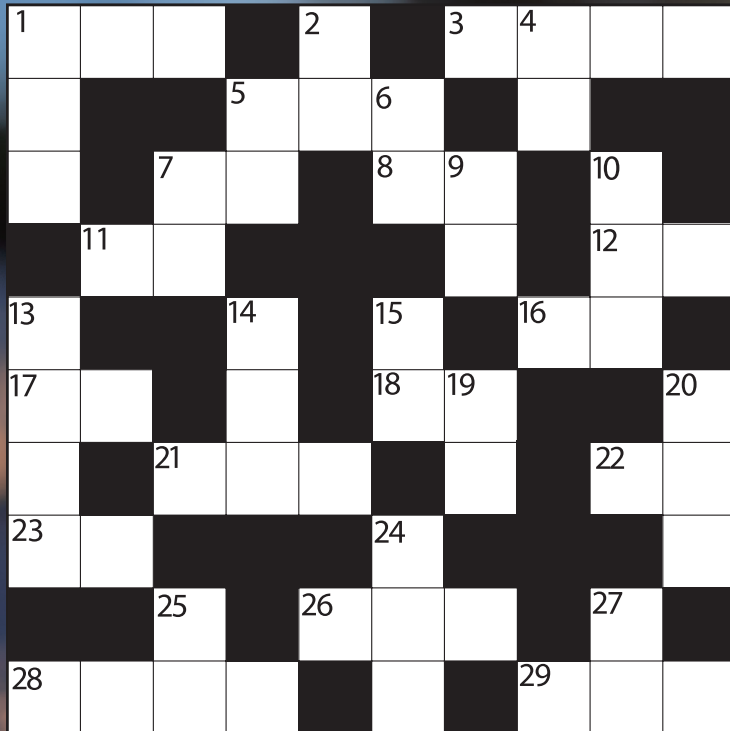


이번 토론토 코스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붙들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 김화수 목사의 헌신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사역에 기도와 동행으로 함께할 것이다.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에베소서 편

이번 호는 신약의 열 번째 권인 <에베소서>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서기 62년을 전후하여 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갈라디아서 편 정답



가로 힌트

- 원편의 반대쪽. 성경에서 이편은 영광과 위엄의 자리를 뜻하기도 한다. (엡 1:20)
-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끝이 없이 지속됨. 또는 어떤 의미나 가치, 존재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말한다. (엡 3:21)
- 어떤 사람의 재산이나 신분을 물려 받는 사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이런 사람에 속한다. (엡 3:6)
- 신성한 집. 하나님께 예배드릴 목적으로 세운 건축물을 말한다. (엡 2:21)
-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 믿음의 조상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다. (엡 6:18)
- 사명을 받아 파견된 사람. 바울을 호칭할 때 흔히 앞에 이 말을 붙인다. (엡 4:11)
- 성경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사업이나 재산을 뜻하는 말. 대대로 이어지는 상속물의 의미로도 쓰였다. (엡 1:11)
-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애를 씀. 주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느낄 때 쓰는 말이다. (엡 4:28)
- 믿음직하며 내실이 있음을 뜻하는 말. 또는 믿음이 있으며 착실하다는 의미도 있다. (엡 1:1)
- 의지가 굳고 간신히. 어떤 사람의 의지, 실행, 문체 등을 평할 때 두루 쓰인다. (엡 6:10)
-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하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 ○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엡 4:4)
- 시대에 따라 바뀌는 세태. 본래 바람과 조류를 뜻하는 말로, 인간 삶의 양상이 사회적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것을 말한다. (엡 2:2)
- 어떤 나라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적인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 ○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엡 1:21)
- 어떤 나라나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왕조 시대의 나라에서는 왕이, 봉건 시대의 지역에서는 영주가 통치자였다. (엡 3:10)
-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제물. 대개 양, 소, 염소, 비둘기 등이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쓰였다. (엡 5:2)
- 노예와 대비되어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성경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종이라도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종과 자유인의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엡 6:8)

세로 힌트

- 기대와 짐작과는 반대로. 어떤 상황을 맞을 바에는 차라리. (엡 5:4)
- 가족에 속하는 사람. 에베소서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엡 2:19)
- 원한이 맺힐 정도의 적이나 반대 세력. (엡 2:14)
- 종의 주인, 또는 어떤 사람의 바로 위 지위에 있는 사람을 옛스럽게 부르는 말. (엡 6:5)
- 어떤 사람의 그 자신. 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며 부르는 호칭이다. 한 세대 전에는 연인 서로간을 이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엡 1:5)
- 주로 기독교에서 신자를 두루 부르는 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엡 6:18)
-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폭력으로 남의 물건을 뺏은 사람은 강도라고 한다. (엡 4:28)
- 바울의 동역자. 아시아 출신으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다. (엡 6:21)
- 적의 칼이나 화살을 방어하기 위해 머리부터 몸 전체에 걸쳐 입는 투구와 갑옷. 바울은 영적 무장을 표현하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했다. (엡 6:11)
- 지금의 튀르키예 서해안에 있는 도시. 고대 로마 시대에는 큰 항구 도시로 교역의 중심지였으며,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엡 1:1)
- 평온하고 평안함. 걱정이나 근심이 없고 무고한 상황을 뜻한다. (엡 1:2)
-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하기 위해 지은 건축물. (엡 2:21)
- 어떤 법률적 개념이나 적용을 위해 제정되어 있는 법률의 여러 조항. (엡 2:15)
-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증. 마치 도장으로 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비유의 말이다. (엡 1:13)
- 한 부모 아래 태어난 형과 아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서로를 부르는 표현이다. (엡 6:21)
-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엡 4:6)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청소년들과 부모님, 그리고 저와 말씀으로 마음을 나눈 성도님들께...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 말씀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16:9)처럼, 이 길 또한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순종의 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제 목회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떠나지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후6:10)로 어디에 있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로 마음을 나눴던 모든 분들,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방윤주 목사 / 청소년숲 총괄

유아숲에서 가장 어린 아기부와 어와나에서 가장 어린 커비스와 함께 7년을 보냈습니다. 아기부에서 처음 만난 아기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마치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매주 무럭무럭 자라는 아기들을 볼 때마다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아기부에서 만났던 아기가 어느새 자라 어와나 커비스에서 만났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와 말씀 안에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 7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와 동역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정에서 말씀 먹이시고, 기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사람들에게 진실하며, 모든 일에 성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저의 걸음을 두고 때에 맞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겠습니다.



김오정 전도사 / 유아숲

안녕하세요. 이수진 전도사입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빠르게 지나갔던 주님의교회 7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참으로 큰 은혜였으며 깊은 배움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늘 최고라며 엄지 척해주시던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큰 눈과 큰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듣는 사랑스러운 유치부 친구들,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자라나는 큰 힘과 큰 희망을 보여주신 아기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 함께 하는 사역의 즐거움과 힘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유아숲 목사님과 전도사님, 주님의교회 안에 만났었던 모든 교역자분들과 성도님들 모두모두 제 마음에 소중하게 담고 기억하겠습니다. 새로 옮기는 사역지에서도 받은 이 사랑과 은혜 기억하며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전도사 / 유아숲

샬롬! 이은솔 목사입니다. 2018년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여 준전임, 전임 교역자로 8년의 시간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결혼과 출산,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제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이곳에서 맞이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저에게 단순한 사역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빚어 가심을 깊이 경험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보내 주신 귀한 기도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여호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교회를 향한 마음은 변함없이 기도 가운데 이어갈 것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은솔 목사 / 유아숲

십자말씀이 508호 정답자: 정현정 집사(5교구) 김선미 집사(3교구)

십자말씀이와 함글함글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씀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들,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일정

- 12/13(토)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 12/14(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정기당회
- 12/17(수) 남녀선교회 감사예배
- 12/21(주일) 성탄가족예배
- 12/25(목) 성탄절, 성탄예배

알립니다

- 2026 시니어 교구 편입 신청**
대상: 만 70세 이상 성도(1956.12.31.출생자까지)
기간: 12/7(주일)까지
방법: 신청서(로비 안내데스크) 작성 후 각 교구 목사에게 제출
- 도서부 독후감 공모**
접수: 11/9(주)~12/20(토) ※ 오후 4시 접수마감
방법: 출력하여 도서실(5층)로 제출
분량: A4 1~2장(12pt)
대상: 주님의교회 초, 중, 고 / 일반 성인
시상: 12/28(주), 도서실(3일전 수상문자 전송)
문의: 박동진 안수집사(010.8970.5952)
- 유아세례교육**
대상: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세례교인의 24개월 미만 아기
신청: 12/13(토)까지
교육: 12/14, 21(주일), 오후 2:30 (온라인 줌)
유아세례예식: 성탄절(12/25) 2부 예배 시
문의: 오광순 안수집사(010.3351.9471)

모집합니다

- 주방봉사자**
시간: 8:00 ~ 10:00 (1부 국수팀)
12:00 ~ 2:00 (마무리팀)
문의: 임익수 장로(010.3758.6162)
- 도서부 봉사자**
시간: 주일(홀수 주) 10:30~12:30
문의: 박동진 안수집사(010.8970.5952)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화~금)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